

명이나 엑스포 사업을 모두 성공리에 마쳐 우리나라 통신혁명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뒷장관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조용히 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남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탁월한 용병술을 발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뒷장관은 최근 전자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평가되어 전자대상 수상자 2인중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모언론사가 선정한 「한국을 바꾼 1백인」 중 1인으로, 고려대 행정문제 연구소가 선정한 「전환시대의 행정가 7인」

중 1인으로, 뉴욕 주립대 동창회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동문 7인」 중 미국 차관보인 갈루치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로 「대전 시민 1호」로 기록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교통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관성 있고 매끄럽게 추진한 뒷장관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로 매일 아침 출근 전 집부근에서 1시간씩하는 수영과 독서가 취미이며 기독교 집사로 술과 담배를 전혀 못한다.

建設交通部, 95業務計劃 發表

建設交通部(長官 吳明)는 지난 1월 11일 今年 안에 제3차 國土綜合建設計劃을 전면 수정해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주고속철도를 중심軸으로 國土의 장기적인 靑靑眞을 제시한 「95年 主要業務計劃」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반도가 東北亞의 교통 및 물류 거점지역(據點地域)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항·항만·도로 등 「국가 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21세기에 우리 국토가 동북아 교역의 중심이 되도록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신국제공항은 정보·교역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춰 세계의 중심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지역 용지매입과 어업권 2차 보상은 금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활주로 등 시설물 공

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도시 교통은 전철과 경전철 등 도시 위주로 개편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통일시대와 세계화에 대비해 전면 재편한다.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는 통일후 경의선·경원선과 연결, 중국과 시베리아의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으로 구성한다. 이와함께 이미 수립된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정비, 남북 7개축중 경부와 서해안축 등 4개축은 북한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동해안축 등 2개축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계 확립

2001년까지 6대 도시의 도시철도망을 현재의 3백16km에서 8백25km로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금년중에 수도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2백64.7km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중 전동차 8백68량을 늘리고 운행간격을 단축하며

연결차량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하고 6대 도시의 일반 시내버스는 금년부터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모범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 택시사업 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

교량·터널·지하철 등 주요 구조물과 공동주택·대형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철거·개축·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고속철도·신공항·특수교량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시장 개방이전이라도 외국 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동차량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부품인정제를 도입하고 주요부품은 예비품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물류체계 개선

지난해말 착공한 수도권(의왕)과 부산권(양산) 화물기지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년중에 중부·영남 및 호남권에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수송수단별로 물류정보망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중에 이를 상호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에 착수하며, 물류정보화와 표준화 등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유통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보완·개정할 계획이다.

공장용지의 체계적 개발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전자·통신 등 첨단공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용지 개발 및 분양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단에는 창고 등 물류센터·하수처

리장 등 환경시설·스포츠 센터 등 위락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단 분양을 촉진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공단제도를 도입하며, 이와함께 지방 과학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주요 연구기관이나 대학주변에 산학협동단지의 개발을 지원한다.

수자원 개발

2001년까지 9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해 수자원 이용률을 23%에서 26%로 끌어올리고 31개의 광역상수도과 공업용수 사업을 추진,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33%에서 49%로 높일 예정이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지하수위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수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체 실시로 예상되는 지역간 물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천수 이용에 관한 협의회 등의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미리 지정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점인 단계에서 실거래자와 가격을 노출시키고 명의신탁·증여에 의한 불법거래 방지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의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해 금년 중 55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84% 높이고 수도권 택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단위 택지개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을 지역별정액 고시제에서 원가연동방식으로 바꾸며, 이에따라 같은 서울지역이라도 상계동과 압구정동의 임대료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임대료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